

## 원 지사 중앙정치 병행, 제주는...

어제 공식출범 '미래통합당' 최고위원으로 합류  
총선 통해 원내진출까지 고민... 선거 올인할 듯  
도정 공백 우려에다 '철새 정치인' 혹평도 나와

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4·15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 정치세력이 하나로 뭉쳐 공식출범한 '미래통합당'에 최고위원으로 합류했다.

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·전진당 등이 합당방식으로 창당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는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, 기존 한국당 최고위의 황교안 당대표, 심재철 원내대표, 김재원 정책위의장, 조정태·정미경·김순례·김광림·신보라 최고위원 등 8명에 김영환·김원성·원희룡 제주지사, 새로운 보수당 이준석 젊은정당비전위원장 등 4명이다.

최고위원은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원 지사는 이번 총선을 통해 원내진출까지 고민하고 있으며, 자신의 지지세력을 원내에 진출시킬 수 있는 만큼 의원확장을 위해서라도 4·15총선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.

이 경우 제주현안 문제 해결이 자칫 뒷전으로 밀릴 수 있고 총선 후 이어질 대선가도에서 당내 권력 투쟁과정으로 도정운영에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.

이에 따라 그동안 도민들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약속한 원 지사를 바라보는 제주도민들의 시선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.

또 도지사 취임 후 잦은 당적변경으로 양지만을 추구하는 '철새 정치인'이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.

원 지사는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자 2017년 1월 4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김부성·유승민 의원 등이 창당한 '바른정당'에 합류했다.

이후 김부성 의원 등이 2017년 5월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후 자유한

국당에 복당하는 등 '바른정당'이 흔들리자 2018년 2월 13일 출범한 안철수가 이끄는 바른미래당으로 갈아탔다.

하지만 원 지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같은 해 4월 10일 제주도청에서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.

원 지사는 이날 "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개혁정치의 뜻을 현재의 정당구조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"며 "현재의 특정 정당에 매이지 않고, 당파적인 진영의 울타리도 뛰어넘겠다"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.

원 지사는 결국 6·1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제주도지사로 당선됐다. 지방선거 당시 일부 언론에선 원 지사 '민주당 입당설'까지 게재하기도 했다.

원 지사는 도지사 당선 후 취임사에서 중앙정치에 눈을 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고, 지난해 9월 4일 제주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"어디가 입당하게 되면 저를 지지하는 도민 등과 충분히 이야기 할 것이다. 슬그머니 입당하는 일은 없다"고 말했다. 그러나 17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슬그머니 합류했다.

원 지사는 이번 '미래통합당' 입당으로 도지사 취임 후 4번째 당적을 변경하게 됐다. 그동안 줄곧 건강간보수를 강조해 온 원 지사가 보수혁신에 대한 기대와 함께 '반쪽 통합'·'도로친박당'이라는 평가가 교차하고 있는 '미래통합당'에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.

고대로기자 bigroad@ihalla.com



신보라 뚝고 걸어가는 행인들 제주 전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린 17일 어르신들이 눈을 등반한 걸바람을 맞으며 제주시 연동 인도를 걸어가고 있다. 강희만기자

## 한라산둘레길 '무장애 숲길'로 조성

제주도는 올해 17억7600만원을 투입해 한라산둘레길 조성관리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.

한라산둘레길은 현재 천야숲길, 돌오름길, 산림휴양길, 동백길, 수악길, 절물조릿대길, 사려니숲길 등 7개 코스·66km가 개설돼 있다

제주도는 '무장애'와 '임업농가와

의 상생'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.

한라산둘레길 사려니숲길 구간에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나눔길 시설, 안내판과 벤치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. 숲속 버섯재배장에서 생산되는 양파와 두릅, 곰취 등 다양한 산나물 등 임산물을 홍보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한다.

송은범기자

## 선택2020 제주 미래 한라일보·제민일보·JIBS 공동기획Ⅲ 아젠다20

### 제주경제 2016년 정점... 3년째 내리막 길

####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

제주경제가 지난 2016년 정점을 찍은 후 3년 연속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.

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 지역내 총생산(GRDP) 성장률은 2014년 6.9%에서 2015년 7.4%, 2016년 8.0% 상승세를 이어가며 정점을 찍은 후 2017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
2018년 제주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-1.7%로 전년도 4.6%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. 1인당 GRDP도 2017년 3100만원에서 2018년엔 3051만원으로, 전라북도 28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.

#### 대규모 개발사업 중단 따른 건설업 등 부문 부진 영향 산업다변화·기업성장 위한 제도 개선 등 뒷받침 절실

제주연구원은 지난해 GRDP 성장률이 0.3% 올랐지만 0.8%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 특히 올해 전세계를 감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으로 인해 올해 GRDP는 0.8%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

이처럼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예대휴양형주거단지,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중단으로 인한 건설업 등의 부진이 장기화되고, 여기에다 농림어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불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.

코로나19 사태는 사드배치에 따른 한라령 완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올해 기대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. 중국인·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할 경우 제주관광산업은 역대 최고의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. 제주지역은 제조업이 4%에 불과하지만 관광·숙박 및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 비중은 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관광객 감소는 도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.

제주도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▷민생경제 ▷1차산업 ▷관광 ▷미래산업 ▷도시건설 등 5대 분야 총 56개 과제에 7920억원을 투자하고 코로나19로 직·간접적인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용자를 지원할 예정이나 경기부양에는 한계가 예상되고 있다.

▷일자리 실태-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고용불안, 낮은 임금은 제주청년들을 대도시로 향하게 만들고 있다.

제주연구원의 정책연구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사업체는 2017년 기준 총 6만636개로 종사자수 26만2747명이다. 이중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체는 4만9200개로 81.9%, 50인 미만이 17.3%이다. 숙박·음식업이 전체의 28.3%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23.9%, 운수업 9.7%의 순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. 또 2019년 상반기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5.2%로 전국의 75.3%에 비해 10.1%p 낮다. 반면에 자영업자의 비중은 29.0%로 전국(20.9%)보다 8.1%p 높은 수준이다. 제주지역 임금수준은 상용직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수준은 228만원으로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.

제주지역 실업률은 2016년 2.2%를 기록한 후 2017년 1.9%, 2018년 2.0%를 기록했다. 고용률도 2017년 70.9%에서 2018년엔 68.4%로 하락했다.

이에 제주도는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을 약속했다. 제주도 제시한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 계획을 보면 공무원 2500명,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2500명, 공공·사회서비스 부문 5000명이다. 이같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조달은 개발이익의 도민환원, 관광수익, 공공자원 사용수익, 신사업개척, 도민펀드 조성, 카지노 특목적 면허사업 수익의 도민환원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. <연론3사 공동취재단>

▶2면에 계속

▶▶ 제주섬 '포퓰러'... 4면 / "코로나19 청정지역 제주로 오세요..." 5면

40년 전통 연구 개발 창업자



회장 강철만

대한민국 대표방수제 **친환경 칠만표방수제** 누구나 칠만하면 장기간 100% 방수

**KCC 페인트** 제주대리점

컴퓨터 지동시스템(조색기) 구비

**강력접착방수제**



특징: 통기성 (공기는 통해도 물은 들어가지 않는) 이 있어 들뜨지 않습니다.

용도: 모든 콘크리트 건축물 일절 (옥상, 외벽)

※ 소비자가 인정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수제

**한번 칠하면 100% 방수되고 오래가는 칠만표 수용성 방수페인트**

특징: 강한 접착력은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(시간절약, 비용절약)

용도: 드라이비트 및 콘크리트외벽 (주택, 아파트, 빌라, 펜션, 호텔, 상가 등)

타일면, 벽돌면, 스톤면

※ 세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,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.



드라이비트벽: 성지요양원



타일면: 이도아구점빌딩

**싱글 지붕용 탄성도막방수제**



노형 워터스틸라 12차, 미건빌라

자외선에 쬐(부식)아 있는 싱글 지붕에 칠하면 100% 방수되고 단단한 새 지붕으로 바뀝니다.

**최고급 벽난로 판매**

100% 스텐연통 설치

무동력 펠릿+화목겸용



조천면 대흘리 가정집 설치



초기점화 30초내

종류: 장작용, 정원용, 캠핑용 벽난로

★ 주요생산물: 녹/외색 접착방수제, 황토방수제, 균열보수제, 모체강화제, 수용성침투성방수제(발수제), 타일풀는방수제, 결로방수제, 고농축완결방수제, 급결지수제, 우레탄류

**방수 백화점**

금강종합건설 **KCC 페인트** · 칠만표방수제 · (주)대화정밀 · 현대공구 · 난로세상

제주대리점 T. 752-8209, 758-8209, F. 753-8209

※도민들께 주의를바랍니다.